

# ‘도민 화합 한마당’ 전남체전 오늘 완도서 개막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선수단 7195명 고향 명예 걸고 15일까지 열전  
족구·게이트볼 등 시범·전시종목 경기도 열려  
완도군 첫 개최...환경·숙박업소 정비 등 완료

전남도민 체육  
한마당이 완도에서 열린다.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청정바다 완도에서 화합하는 전남체전’라는 주제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완도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 대회에는 22개 시군 7195명 선수단이 참가해 28개 경기장에서 시군 명예를 걸고 열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육상, 축구, 배구 등 22개 정식종목과 족구·게이트볼 등 시범·전시종목 경기도 열린다.

군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대회를 치르는 완도군은 ‘성공·참여체전’, ‘안전·경제체전’, ‘문화·관광체전’, ‘화합·희망체전’을 목표로 대회 성공 개최에 공을 들였다.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완료했고 환경정비, 숙박업, 음식점소 정비 등을 완료했다. 선수단과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홍보전시관, 무료체험프로그램, 스포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2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개회식은 시군별 선수단입장, 개회선언, 개회사, 각종 축고사, 선서 성화점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성화점화 최종 주자로는 ‘대한민국 남자골프 레전드’ 최경주가 나선다. 축하 콘서트에는 노라조, 다비치, 송가인, 장민호 등 가수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이색 출전 선수들이 눈길을 끈다. 부부 선수는 완도군 최경호, 김유정 부부 등 14쌍의 커플이 참가한다. 해남대표로 천야간·천보아수(축구) 쌍둥이 형제 등 형제·자매·남매, 부자, 부

녀, 모자, 모녀 26팀이 출전한다.

광양시 육상 마라톤 선수로 참가하는 김동욱(57)씨는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2회 연속 전남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전·현직 국가대표들도 참가한다.

전 볼링 국가대표 최복음과 백중운(광양시),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위진아(여수시)를 비롯해 사격 국가대표인 박예은(여수시)과 볼링의 가수형(광양시), 김현미(곡성군)와 배드민턴 청소년국가대표인 정다연(화순군) 등도 경기에 나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청정바다 완도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은 200만 도민이 한데 어울리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진호 전남체육회장은 “지난 62년동안 전남체육 발전을 견인한 도내 최대의 체육행사인 전남도체육대회가 완도에서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대회인 만큼 안전하고, 정정당당한 대회가 될길 바라며, 목표한 성과 이루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완도군 관계자 등이 제62회 전남도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주경기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광주FC ‘달빛더비’서 무승 고리 끊는다

K리그1 13일 대구와 홈경기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 활약 기대

위기의 광주FC가 ‘달빛더비’에서 무승 고리 끊기 나선다.

광주는 13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대구FC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23 1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승점 3점이 절실한 광주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FC서울 원정경기에서 1-3로 패했다. 0-1로 뒤진 후반 5분 허을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뒷심싸움에서 밀리면서 5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갔다.

뜨거운 공세는 이어가고 있지만 2부 3패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는 안방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이번 대구전에서 광주는 광주 유스 출신인 ‘광탄소년단’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앞선 서울전에서도 이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이희균이 투입과 함께 날카로운 패스와 드리블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허을은 이희균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흐르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해 2호골을 성공했다.

공했다.

임지성도 측면에서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정호연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활약을 이어갔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의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광주는 자리 수성에 나선다.

광주는 4승 2부 6패(승점 14·득점 14)의 전적으로 7위에 올라있다. 대구는 3승 5부 4패로 광주와 승점이 같지만 득점(13)에서 밀려 8위다.

시즌 초 부침을 겪었던 대구는 고재현, 에드가, 김진혁, 세징야, 이진용 등 주축 선수들의 활약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9승 5부 7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4번의 맞대결에서도 광주가 3승 1패로 앞서 있다. 지난 7라운드 대구 원정 경기에서도 광주가 4-3으로 승리를 장식했다.

광주는 홈팬들 앞에서 더 적극적인 압박과 공격으로 기선을 제압한다는 계획이다. 승리가 절실한 광주가 대구전 우위를 이어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한편 앞선 부천 원정에서 2-5 대패를 기록했던 전남드래곤즈는 이번 라운드 휴식을 취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앞선 대구 원정에서 광주FC 허승운이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 전갑수 광주체육회장, 조선태 배구팀 격려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가 2023 KUSF 대학배구 U-리그 참가 중인 조선태대학교 배구팀을 격려했다. <사진>

전갑수 시체육회장은 11일 조선태대학교 체육관에서 조선태대학교 배구선수단에 격려금을 전달하고 2023 KUSF 대학배구 U-리그 경기를 관람했다. 현재 1승 1패 성적을 거두고 있는 조선태대학교 배구선수단은 이날 홍익대와 경기했다.

박성필 감독과 여찬오 코치, 선수 13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은 동계 훈련기간 동안 체력보강과 전술훈련을 통해 전력을 끌어올렸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선수들에게 “2023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한다”며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는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체육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내년 파리올림픽 선수촌 ‘미식 대잔치’에 와인은 없네

메뉴 500개 이상...알코올은 안돼

‘미식의 나라’ 프랑스의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는 각 나라 대표 선수들은 선수촌에서 어느 대회보다 화려한 식단 덕에 눈과 입이 즐거울 것 같다.

올림픽 관련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더게임을 11일(한국시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선수촌에서 각 나라 선수들에게 제공할 식단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도를 보면, 파리조직위원회는 자국 유명 셰프들을 올림픽 기간 선수촌 음식 조리에 대거 투입한다. 파리 ‘라 폴리쉬’라는 식당의 오너 셰프이자 영국 런던 레스토랑 로즈워드의 수석 셰프

로 유명한 아마딘 세노, 세계 레스토랑 평가 매체인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은 마르세유 레스토랑 셰프인 알렉산드레 마지아 등 요리의 대가가 선수들을 위해 주방을 지휘한다.

올림픽 때 선수촌 음식을 관장하는 프랑스 푸드 서비스 기업인 소텍소는 대회 기간 매일 4만 끼를 선수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텍소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가 전 세계를 식탁으로 초대할 것”이라며 미식의 향연에 큰 자부심을 보였다.

파리조직위는 선수들의 식습관과 종교 등을 고려해 500개 이상의 메뉴를 구성할 참이다.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1/3은 채식 위주의 식물성 메뉴로 채운다. 고기, 유제품, 달걀 등은 농

업 대국인 프랑스산을 사용하며, 바나나와 쌀 등 수입 식자재는 유기농으로 재배했거나 공정무역 인증을 받은 것을 쓴다.

파리조직위는 또 전통 프랑스 바게트, 크루아상 등 과자류를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코너도 운영한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는 파리올림픽 셰프들은 재미있고, 고급 입맛의, 건강한 메뉴를 약속했다.

다만, 어느 올림픽에서든 선수촌이 알코올을 대회 기간에 선수들에게 제공할 적은 없기에 이번에도 프랑스 명산 와인도 아쉽게도 선수촌 메뉴에서 빠졌다.

파리에서 통상 세 번째로 열리는 파리올림픽은 2024년 7월 26일 막을 올려 8월 11일 폐막한다. /연합뉴스

# 아데토쿰보·돈치치 등 NBA ‘시즌 베스트 5’

미국프로농구(NBA) 2022-2023시즌 베스트 5에 해당하는 퍼스트 팀에 아디스 아데토쿰보(밀워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오클라호마시티), 루카 돈치치(달라스)가 선정됐다.

NBA 사무국은 11일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퍼스트 팀 명단을 발표했다.

미디어 패널의 투표로 선정된 퍼스트 팀에서는 아데토쿰보가 만장일치인 500점을 받았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엠비드는 생애 처음으로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

길저스 알렉산더도 퍼스트 팀에 처음 선정됐다. 퍼스트 팀 5명 가운데 길저스 알렉산더와 돈치치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팀 소속이다.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 선수 2명이 퍼스트

팀에 선정된 것은 1977년 이후 올해가 46년 만이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오클라호마시티), 루카 돈치치(달라스)가 선정됐다.

NBA 사무국은 11일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퍼스트 팀 명단을 발표했다.

미디어 패널의 투표로 선정된 퍼스트 팀에서는 아데토쿰보가 만장일치인 500점을 받았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인 엠비드는 생애 처음으로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슨 테이텀(보스턴), 조엘 엠비드(필라델피아),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오클라호마시티), 루카 돈치치(달라스)가 선정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2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 3관 문재인입니다, 드림
- 4관 스트리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 5관 극장판 장구는 못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 칠중주: 홍콩 이야기
- 6관 드림
- 9관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바람개비
- 7관 싸네키블 존 워 4, 유랑자극2
- 8관 싸네키블 문재인입니다, 스페이의 문단속, 리바운드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5-04(목) ~ 2023-05-28(일)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11시 음악산책  
'올 댓 러브!!! 이충섭, 오교로 보낸 편지'  
일시 : 2023-05-30(화) 오전 11시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6